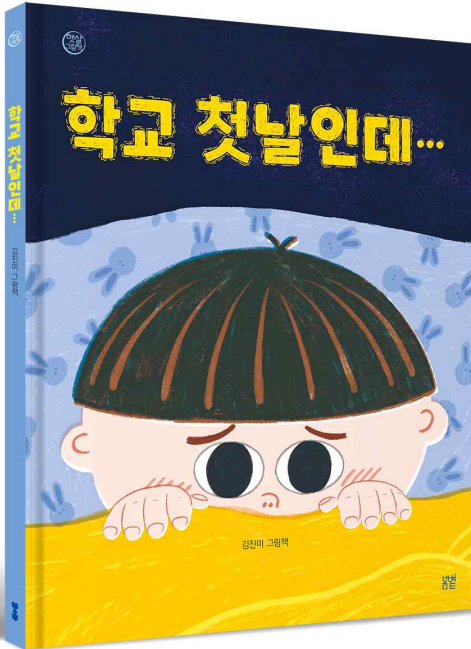


# 학교 첫날인데...



김진미 지음 / 봄별

초등학교 입학 첫날의 생생한 떨림과  
긴장감을 사르르 녹여 주는 달콤한 그림책  
초등학교에 가는 첫날, 아이들은 저마다 바짝 긴장하거  
나, 설렘에 뺨을 붉히거나, 빙그레 미소를 띤 채 교실  
로 들어간다. 선생님이 자기소개를 해 보라고 하자 아이  
들은 하나둘 씩씩하게 자기 이름을 말한다. 그 가운데  
한 남자아이가 쭈뼛거리며 좀처럼 이름을 꺼내지 못한  
다. 수줍음 많은 아이의 이름은 대체 무엇일까? 아이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새 친구를 사귄 수 있을까?

주제	주변 사람들과 '첫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용기를 얻은 경험 나누기
권장 차시	6차시
대상 학년	1, 2학년
관련 주제어	입학식, 시업식, 처음, 첫날, 긴장, 불안, 용기, 시작, 도움, 격려
교육 과정 연계	<b>국어</b> [2국05-02] 인물의 모습, 행동, 마음을 상상하며 그림책, 시나 노래, 이야기를 감상한다. [2국02-04] 글을 읽고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b>통합</b> [2술01-02] 여러 친구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친구와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본다.
작성	밀양 산외초등학교 이송이 선생님

## ■ 도서 소개 (출판사 책 소개)

### 어린 시작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한 권

처음, 시작, 첫날, 설레는 마음 한편으로 긴장과 불안이 뒤따라오는 단어들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시작은 떨리기 마련이겠지만, 대부분이 공통으로 겪는 일생일대의 ‘첫날’을 하나 고르라면 초등학교 입학이 있겠다. 학교라는 교육제도의 첫 문턱을 넘는 순간은 유소년기에 맞이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경험일 것이다. 집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하던 공동생활보다 규모는 더 커지고, 배워야 할 지식도 익혀야 할 규칙도 훨씬 많아진다. 스스로 해내야 하는 일이 부쩍 늘어난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떨리고 어려운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에 적응해 갈 수 있을까?

《학교 첫날인데...》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들의 바짝 긴장한 마음을 다독인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한 계단을 오르고, 시점은 엄마에서 아이로 바뀌었다. 그만큼 아이의 속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학교에서 처음 보내는 하루를 아이의 관점에서 솔직하게 풀었다.

### ■ 학습 목표

- 인물의 표정이나 몸짓으로 인물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다.
- 친구들의 다양한 특성을 이해하고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 시작하기 어려웠던 일을 하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다.

### ■ 수업 준비

누구에게나 처음은 쉽지 않다. 그중에서도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학교 첫날은 기대되는 동시에 수많은 걱정이 앞서는 날이다. 그림책 속 주인공은 걱정 어린 표정으로 학교 첫날을 맞이한다. 표지를 보면 노란색 이불 뒤에 숨어있는 아이의 눈망울에 걱정이 가득하다. 게다가 제목 글씨마저도 아이의 마음처럼 함께 떨고 있다.

책장을 펼치면 첫날을 시작하는 아이의 특별한 하루가 생생하게 그려진다. 정글과 같은 교실의 분위기, 동물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새 친구들과 선생님의 모습, 그리고 학교에서의 모든 경험은 두려움의 연속이다. 입학식 종일 마음대로 되는 일 하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치기까지 하는 주인공에게 학교생활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부터 이야기는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비로소 친구들의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 주인공은 자기의 이름을 자신 있게 말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인사를 큰 소리로 전할 만큼 마음의 긴장을 푼다.

『학교 첫날인데...』는 3월 입학식을 막 맞이한 1학년 학생들과 함께 보기에 적절한 그림책이다. 1학년 봄 교과와 “1. 학교에 가면” 단원의 단원 도입부나 다양한 친구들의 특성을 알아보는 즐거운 생활 교과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지도하면 좋을 것이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친구들의 모습을 이해하고 함께 잘 지내는 방법을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학급 생활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입학을 맞이하는 입학생뿐 아니라 새 학년, 전학, 새 학원, 새 학생들을 맞이하는 교실의 선생님 등 모든 새로운 첫날을 맞이하고 있는 이들의 두려움 극복 과정을 함께 나누며 용기를 얻은 경험을 이야기하기에도 좋을 것이다.

**수업 준비물** 색연필, 사인펜, 색종이(다양한 색상), 도화지, 전지

## ■ 학습 과정

읽기 단계	주요 활동	차시
읽기 전	마음 열기 표지 살펴보기	1차시
읽는 중	책 읽기 장면을 보며 질문해보기	1차시
읽은 후	책 제목 꾸미기	1차시
	나는 이런 동물이에요(나를 동물로 표현하기) 역할극 하기	2차시
	용기 얻은 경험 표현하기	1차시
	<선택 활동> 환영 현수막 만들기	1차시

## 읽기 전

### 1. 마음 열기

#### ■ 첫날과 관련된 경험 이야기 나누기

- 첫날 겪었던 나의 경험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학교 첫날, 학원 첫날, 전학 첫날 등등
  - 예) 입학식 첫날 학교에 빨리 가고 싶어서 잠이 잘 안 왔어요./
  - 2학년 첫날 어떤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될지 너무 궁금했어요./
  - 전학 첫날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기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되었어요./
  - 학원 첫날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실수를 많이 해서 부끄러웠어요.

Tip. 고학년의 경우 첫날 경험에 대한 나의 감정에 초점을 두어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감정에 초점을 두어 지도할 때는 놀이를 통해 어떤 감정에 많이 공감하는지 알아볼 수 있게 한다.

#### <감정 공감 놀이>

1. “첫날”이라는 주제어를 제시한다.
2. 주제를 듣고 생각나는 감정을 메모지에 적는다.
3. 자신이 적은 단어를 하나씩 말한다.
4. 친구가 말한 단어를 자신이 적었다면 ‘나도!’를 외친다.
5. ‘나도!’를 외친 친구 수만큼 점수를 적는다.
6. 점수를 많이 받은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2. 표지 살펴보기

### ■ 표지 살펴보기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예) 《학교 첫날인데...》입니다.

-첫날 또는 처음을 떠올리면 어떤 색이 떠오르나요?

예) 하얀색/ 노란색/ 황금색 등

-여러분의 첫날은 어땠는지 생각하며 첫날 느꼈던 감정에 어울리는 색종이를 고르고 왜 그 색을 골랐는지 이유도 말해 봅시다.

예) 제 기억 속의 학교 첫날은 밝고 희망찬 느낌의 파란색이었습니다./ 나의 2학년 첫날은 무겁고 긴장되는 느낌의 빨간색이었습니다./ 저의 학원 첫날은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 시끌벅적한 느낌의 반짝이 노란색이었습니다./ 전학 첫날이 기억나는데 그날은 제겐 우울하고 힘든 연보라색이었어요.

Tip. 다양한 색상의 색을 보고 고를 수 있도록 단면 색종이, 양면 색종이, 파스텔색 색종이, 반짝이 색종이 등 다양한 색종이를 길게 자른 조각을 활용한다. 색종이가 없다면 다양한 색의 수채물감 팔레트나 파스넷 등 여러 개의 색상을 볼 수 있는 도구를 다양하게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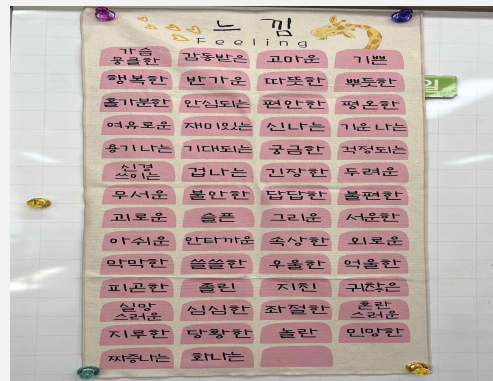
-앞표지에 나온 아이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어떤 표정인가요?

예) 울 것 같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예) 학교에 가기 싫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서운 선생님을 만날까 봐 그런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할까 봐 그런 것 같습니다.

- 나의 학교 첫날은 어땠는지 감정을 살려 표정 짓기 놀이를 해보고 어떤 표정인지 친구들과 이야기 해 봅시다.



<감정 카드 활용 예시>

Tip. 한 명씩 앞으로 나와 표지의 표정을 따라 해보게 하거나 자신만의 학교 첫날 느낌을 살려 감정을 담아 표정을 지어 보게 하고 다른 친구들은 그 표정을 보며 어떤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감정 카드 등을 이용하면 다양한 감정 말하기에 도움이 된다.

## 읽는 중

### 1. 책 읽기

#### ■ 면지 살펴보기

-앞 면지에 나온 장면을 살펴봅시다. 어떤 장면인가요?

예) 입학식 장면입니다.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입학식을 떠올리며 자기와 가장 비슷한 아이를 찾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 뒤로 돌아보는 아이: 우리 엄마는 어디에 있지?

옆을 보며 이야기하는 아이: 빨리 교실에 가고 싶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이: 너무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아이: 가방 정말 무겁다.

맨 뒤에 도토리 무늬 가방을 든 아이: 어디로 가서 줄을 서야 하지?

선생님: 우리 반 아이들 참 귀엽다.

Tip. 글을 쓸 수 있는 학년에서 적용하는 경우 말풍선 포스트잇에 글을 써서 붙인 뒤 함께 읽는 활동도 할 수 있다.



-한 장을 넘기면 어떤 장면이 보이나요?

예) 어두운 방에 아이가 있는 곳에만 조명이 비추어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침대에 누워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의 아이가 눈을 뜨고 누워있습니다.

-아이의 주변에 무엇이 보이나요?

예) 도토리가 그려진 책가방/ 사자가 그려진 이불/ 돼지 저금통/ 코끼리 액자/ 동물 백과사전/ 원숭이 인형 등

-아이의 무슨 걱정을 하고 있나요?

예) 교실을 못 찾을까 봐 걱정합니다./ 오줌이 마릴까 봐 걱정합니다./ 엄마가 보고 싶을까 봐 걱정합니다.

-여러분은 입학식 전날 어떤 걱정이 들었나요?

예) 화장실이 멀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급식을 다 못 먹어서 혼날까 봐 무서웠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뒷 면지에 나온 장면을 살펴봅시다. 어떤 장면인가요?

예) 동물 교실입니다./ 사람 선생님이 동물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숲속 동물원 교실에서 동물 친구들이 앉아 있습니다.

-동물 친구들이 책상에 앉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원래는 사람인데 동물들과 비슷한 점이 있어서 동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각 동물은 어떤 특성을 가진 친구들을 표현한 것일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예) 머리카락이 풍성해서 사자로 표현했어요./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코끼리처럼 그렸어요.  
귀여운 친구라서 토끼처럼 그렸어요./ 매달리기를 잘 하는 친구는 원숭이처럼 표현했어요.  
달리기가 빠른 친구는 표범으로 나타냈어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동물로 나타내고 싶은가요?

예) 동물의 왕 호랑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친절한 목소리를 가진 새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키가 큰 기린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 ■ 함께 읽으며 내용 파악하기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예) 입학식 날입니다.

-처음 교실에 들어온 친구는 누구인가요?

예) 사자입니다.

-사자 다음엔 누가 들어왔나요?

예) 토끼, 쥐, 돼지, 너구리, 원숭이, 기린 선생님이 왔습니다.

-친구들이 자기 이름을 말할 때 주인공은 어떻게 했나요?

예) 부끄러워하면서 결국 말을 못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주인공에게 사자는 무엇을 부탁했나요?

예) 연필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주인공은 무엇을 했나요?

예) 종이비행기를 접었습니다.

-종이비행기를 누가 가져갔나요?

예) 코끼리가 날려본다며 가져갔습니다.

-주인공은 어떻게 했나요?

예) 비행기를 잡으러 가다가 코끼리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주인공은 왜 못 일어났나요?

예) 친구들이 웃을까 봐 창피해서입니다.

-친구들은 넘어진 주인공을 보며 어떻게 했나요?

예) 모두 모여 함께 안고 보건실로 데려갔습니다.

-치료를 마친 선생님이 무엇을 주었나요?

예) 선물로 사탕을 주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사탕을 어떻게 했나요?

예)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주인공은 어떻게 했나요?

예)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 자신 있는 모습으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 **인상 깊은 장면이나 문장 찾고 자기의 경험과 관련하여 이야기 나누기**

-인상 깊은 장면이나 말을 찾고 비슷한 경험을 들어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예) 주인공이 학교 가기 전날 잠을 못 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저도 걱정이 많으면 잠이 잘 안 오거든요. 자기소개할 때 더듬거리며 말을 잘 못 하는 주인공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기소개할 때 많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 넘어졌지만 부끄러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주인공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도 예전에 넘어져 아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 장면을 보며 질문해보기**

- 그림책을 함께 넘겨보며 궁금한 점을 질문해봅시다.

<b>&lt;그림책을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질문 예시&gt;</b>	
1~2쪽	교실에 발자국이 왜 있을까요? 주인공 머리 모양은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주인공은 왜 그렇게 일찍 학교에 왔을까요?
3~4쪽	사자는 왜 땀을 흘릴까요? 사자가 들어오자 왜 교실에 풀이 자라날까요?
5~6쪽	왜 주인공만 빼고 다 동물일까요? 주인공은 왜 땀을 흘리고 있을까요? 주인공과 사자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교실에 왜 풀이 더 많아졌을까요?
7~8쪽	교실에 왜 이렇게 풀과 나무가 많을까요?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선생님은 왜 기린일까요?
9~10쪽	친구들 이름이 왜 그렇게 지어졌을까요? 주인공은 왜 이름을 말하지 못할까요? 주인공 이름은 무엇일까요?
11~12쪽	쉬는 시간엔 뭘 하면 좋을까요? 짹은 왜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13~14쪽	주인공은 왜 속이 울렁거릴까요? 주인공 어깨에 손을 올린 것은 누구일까요?

15~16쪽	사자는 왜 저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얼굴이 빨개졌을까요? 주인공 책상의 공책에는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17~18쪽	늑대와 꿀꿀이는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19~20쪽	쉬는 시간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주인공은 뭘 하면 좋을까요?
21~22쪽	코끼리는 왜 종이비행기를 가져갔을까요?
23~24쪽	친구가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26쪽	주인공은 왜 못 일어날까요?
27~28쪽	친구들은 왜 주인공을 들고 갈까요? 친구들의 모습이 왜 급해 보이나요?
29~30쪽	보건 선생님은 왜 양일까요? 함께 있는 친구들은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31~32쪽	선생님은 왜 사탕을 주셨을까요? 주인공은 왜 친구들을 바라볼까요?
33~34쪽	친구들이 행복한 표정을 지은 이유는 무엇까요?
35~36쪽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의 표현이 밝아 보이는 이유는 무엇까요?
37~38쪽	주인공이 이름을 말해준 이유는 무엇까요?
뒷면지	뒷면지에서 선생님만 사람으로 그려진 이유는 무엇까요?

## 읽은 후

### 1. 책 제목 꾸미기 <활동지 1 참고>

#### ■ 제목 살펴보기

-책 제목은 무슨 색인가요?

예) 노랑입니다.

-노란색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예) 따뜻하다/ 밝다/ 신난다 등

-제목에 노란색으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해가 떠야 학교에 가니까 햇빛처럼 노란색인 것 같습니다.

학교 첫날이니까 처음 시작하는 병아리 같은 마음이 들어서 노란색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한다는 의미로 아침에 드는 햇빛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노란색으로 색칠했습니다.

-제목 주변에 어떤 모양의 선이 보이나요?

예) 물결 모양 선이 보입니다./ 파도 모양 선이 보입니다./ 지렁이 모양 선이 보입니다.

-왜 이런 선을 넣었을까요? 제목과 선의 모양을 관련지어 생각해 봅시다.

예) 학교 가는 첫날이니까 떨리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입학식 날 긴장해서 불안한 마음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학교 첫날이라 두근두근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첫날의 감정을 색과 형태로 꾸며 책 제목을 다양하게 표현해 봅시다.



## 2.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동물로 표현하고 역할극 해보기

### ■ 등장인물 탐색하기 <활동지 2 참고>

-친구들이 자기소개하는 장면을 보며 친구들이 어떤 동물로 표현되었고 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봅시다.

- 예) 박사자는 사자처럼 덩치가 크고 머리카락이 풍성해서 사자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표영범은 표범처럼 빠르고 겁싸게 행동해서 표영범이라고 했어요.  
이꿀꿀은 피부가 부드럽고 핑크색이라서 돼지 울음소리로 이름을 지었어요.

### ■ 주인공 특성 살펴보고 이름 알아맞히기

-주인공의 모습과 행동을 보며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 예) 머리가 도토리 모양이고 가방에도 도토리가 그려진 것으로 보아 도토리를 좋아하는 김다람일 것 같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고 머리카락이 갈색인 것을 보아 햄스터와 비슷해 보여서 이햄톨일 것 같습니다.  
강아지처럼 둥글둥글 귀엽게 생긴 것을 보아 강아지일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잘 못 하고 행동이 느릿느릿한 것을 보아 박나늘(나무늘보)일 것 같습니다.

### ■ 나를 동물로 표현하기 <활동지 3 참고>

-여러분이 이 반의 학생이라면 어떤 동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자신의 겉모습과 성격을 생각해 본 뒤 나를 동물로 표현해 봅시다.



귀엽고 재빠른 다람쥐

피부가 하얗고 밥을 잘 먹는 돼지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사람을 자 따르는 무지개색 강아지

### ■ 역할극 하기

-다음에 주어진 상황에 맞게 역할극을 해봅시다.

#### 상황 <처음 본 친구들과 함께하는 첫날>

1. 첫날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데 부끄러워서 용기가 나지 않을 때
2. 준비물을 빌려야 하는데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때
3. 친구가 나의 소중한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서 속상할 때
4. 쉬는 시간에 함께 놀고 싶은데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때
5. 모르는 장소를 찾아가야 하는데 혼자서는 힘들 때
6. 처음 만난 친구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난 뒤 헤어질 때



### 3. 용기를 얻은 경험 표현하기

#### ■ 용기를 얻은 경험 나누기

-시작하기 힘든 일을 해야 할 때 어떻게 용기를 얻었는지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예) 학교 첫날 아는 친구가 없어서 외로웠는데 새로 생긴 짝이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어서 정말 고맙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사 간 동네에서 친한 친구들이 없이 혼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처음 본 친구들이 다가와서 함께 놀자고 이야기해 주어서 힘이 났습니다./ 학교에서 혼자 보건실을 찾아가야 했는데 길을 몰라 당황했는데 어떤 언니가 보건실까지 데려다주어서 이제 혼자서도 잘 찾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준비물을 안 가지고 온 날 친구에게 빌려달라는 말을 못 했는데 친절한 친구가 먼저 빌려준다고 말 해 주어서 다음엔 혼자서도 빌려서 쓸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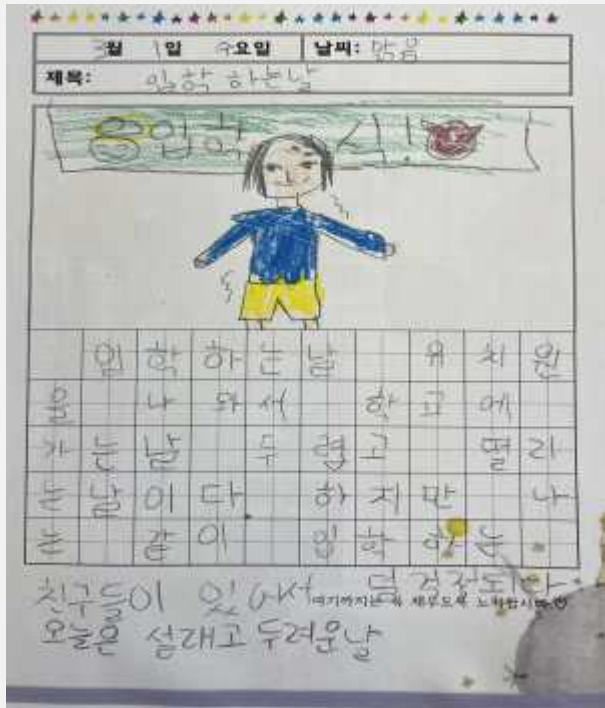
#### ■ 힘이 되는 말 알아보기

- 무언가를 처음 해보는 힘든 상황에서 어떤 말들을 듣고 싶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 우리도 다 처음엔 힘들었어./ 처음엔 원래 힘든 거야./ 실수해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나랑 같이 할래?/ 넌 할 수 있을 거야.

#### ■ 용기를 얻은 경험 표현하기

-시작하기 어려운 일을 할 때 용기를 얻어 힘을 낸 경험을 그림(또는 그림일기)으로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의 그림을 모아 그림책(또는 그림 일기책)을 만들고 함께 감상해 봅시다.



아코디언 책 제작 예시



아코디언 그림일기 책

Tip. 글을 쓸 수 있는 경우 그림일기를 통해 글과 그림으로 함께 내용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아직 글쓰기가 힘든 입학 초기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할 때는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함께 보며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 <선택 활동> 환영 현수막 만들기

### ■ 환영 현수막 만들기

-새로운 환경에서 첫날을 맞이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입학식입니다./ 이사 가는 경우입니다./ 전학 가는 일입니다./ 처음으로 학원가는 날입니다.

-첫날을 맞이하는 다른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용기를 얻은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해 봅시다.

예) 새로 입학하는 동생들을 위해 입학 환영 현수막을 만들어 줍니다.

전학생 친구를 위해 우리 반을 소개하는 글을 미리 써서 걸어 둡니다.

새로 이사 온 친구를 문 앞에 우리 동네 맛집 소개 메모를 붙여 둡니다.

-첫날을 맞이하는 친구 또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친구들을 위해 환영 현수막 만들기를 해봅시다.



<환영 현수막의 예:  
전학생을 위한 우리 반 소개 글 만들어서 걸어두기>